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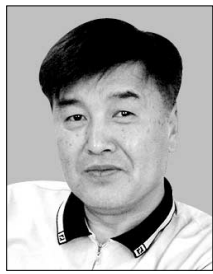
‘떨너’나 ‘개똥녀’를 혹시 알고 있나? 최근 조성된 이 단어의 인지 여부가 네티즌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르르 떨듯이 춤을 추는 동영상으로 수많은 네티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한 여학생을 ‘떨너’라고 한다. 그녀가 하면 지하철에서 애완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내린 20대 여성을 네티즌들이 패심너로 지목하여 얼굴사진을 공개하고 ‘개똥녀’라는 별명과 함께 온갖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던 사건이 최근에 발생했다.

떨너와 개똥녀의 광풍이 휘몰아친 이후, 떨너는 스타 만들기를 위한 기획사의 의도된 ‘인터넷 여론몰이’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으며, 마녀사냥식 ‘사이버 테러’를 당했던 개똥녀의 경우에는 주위의 비난에 너무 당황해 뒤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현장 증언들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동 이후의 반성과 자정에도 불구하고 떨너는 이미 의도된 ‘인터넷 여론몰이’에 의하여 스타가 됐으며, ‘사이버 테러’를 당한 개똥녀의 인격체는 돌이킬 수 없도록 망가져 버렸다. 네티즌들의 무책임한 여론몰이를 빔대어 ‘네티즌’과 ‘패카시즘’을 합친 신조어 ‘네카시즘’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여론을 주도하는 소수와 대중적이고 부



볼자 세상보기

이종욱  
동국대 정보관리학과 교수

인터넷의 비극 ‘여론몰이’

화뇌동하는 인터넷 군중들이 달려들어 사정없이 특정인을 인민재판식으로 비난하며, 당사자는 아무런 해명조차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나타내는 용어라고 한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인터넷의 순기능은 많다. 특히 인터넷이 공간과 시간의 격차를 해소해 주고, 양질의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 문명의 이기라 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갈 권리가 신장되어 가고, 국민 참여정치가 활발해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하듯 인터넷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경쟁 격화에 따라 기사는 점점 더 선정적으로 흐르고 있으며, 특히 기사를 전달하는 포털 기관에 의하여 선별된 기사만 부각되는 등, 정보의 편식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어서 또 다른 여론몰이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인터넷 참여정치의 경우나 참여할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는 소수의 여론몰이에 따른 여론의 왜곡이란 역설을 낳고 있다. 최근 부결된 재외동포법과 관련하여 이를 반대한 국회의원 명단이 공개되고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이 법의 재상정까

지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네티즌들의 여론몰이가 급기야는 ‘국회는 없고 네티즌 정치만 있다’는 자조의 말까지 나오게 만들었다.

네티즌들의 인터넷 여론몰이와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는 ‘실명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문명의 이기라 할지라도 이를 사용하는 개인의 인격 또는 사회·문화적 수준에 따라서 인성(人性)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흉기로 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편리한 문명의 이기임에는 분명하나 운전예절과 법규를 지키는 양식이 우선해야 하듯이 인터넷도 마찬가지이다.

규제성 인터넷 실명제란 신호등만으로 모자라서 또 다른 감시 장치들 부가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어떠한 통제장치도 이를 지키고자하는 양식을 우선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여론몰이의 부작용을 정보기술이나 법규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인성을 기르고 심성을 닦도록 하여 인간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원천적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불교가 인터넷 세상에서 해야 할 과제가 인간의 근본인 심성을 되찾게 하는 아주 중요한 시대적 화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1975년 대한장로회 교회의 원력을 바탕으로 불교 발전을 통한 국민정신 계도라는 취지로 설립된 지 30주년을 맞는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그간 설립취지 구현에 노력해 온 진흥원이 최근 홍승희 현 이사장을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시켰다고 한다. 제4대 서돈각 이사장의 타계 후 지난해 10월부터 잔여임기를 수행해 온 홍 이사장은 명실상부한 새로운 이사장을 맡으며 “올해로 설립 30주년과 설립자 장로회 교사 열반 30주년을 맞아 대한불교진흥원이 보다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한편, 재도약과 이미지 쇄신의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한마디의 다짐에서 불교 발전의 다양한 코드를 읽는다. 홍 이사장이 맡은 것처럼 진흥원의 30년 역사는 불교계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마인드가 충실히 성숙된 시점이라는 것을 자타가 공인하게 한다.

진흥원 새로운 30년을 위하여

또 설립자의 정신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 진흥원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아름다운’ 상징으로 보인다.

그동안 진흥원에서는 군법당 건립지원, <불교사전>의 간행과 보급 등 교교 사업에 공헌하였으며, 대한불교조계종 등 국역경원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불교계 유수의 종단과 단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불사를 지원하고 동참하였다.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사업을 통해 신행을 견인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진흥원은 눈을 더 크게 뜰 때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행활동을 하는 단체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교발전을 위한 더 큰 길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 포교를 위한 노력에 없지 않았으나 이제 본격적인 프로젝트를 수립해 진행할 때다. 세계는 좁아지고 있고 사람과 사람사이의 의사소통은 빨라지고 있다. 공간과 시간적으로 좁아지는 세상에 더 커지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인간의 욕망과 그로 인한 각종 범죄일 것이다.

진흥원은 이제 한국이라는 무대를 벗어나 세계 인류의 정신문화 진흥을 위해서도 그간의 원력을 다잡아 나가야 할 것이다.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앞으로의 30년을 보다 일차적 설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진철(동국대 정리원장)

이렇게 들었다

독서

배우는 바가 적은 사람은 들에서 쟁기를 끄는 늙은 소와 같이 몸에 살이 찢지라도 지혜는 늘지 않는다. <법구경>

미국의 다국적 여론조사기관인 NOP월드가 세계 30개국을 대상으로 ‘미디어 소비행태’를 조사한 결과, 한국인이 책과 신문, 잡지 등의 활자매체를 읽는 데 할애하는 시간은 주당 평균 3.1시간으로 조사대상국 중 꼴찌였다고 한다. 이는 30개국 평균인 6.5시간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반면 인도는 15%의 문맹률에도 불구하고 10.7시간을 독서에 할애해 조사대상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지난 몇 세기에 걸쳐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과 같다’는 데카르트의 명언대로, 영상매체가 대세라는 현대에서도 독서는 가장 훌륭한 지식 습득의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독서가 여전히 사고력과 상상력, 통찰력, 분석력 등을 길러주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출판업계가 비명을 지를 정도로 우리 국민은 책과 답을 쌓고 있다. 불교계 출판사들 역시 자력방안을 찾기 힘들 정도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져 있다.

학생들도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느라 교양서적을 읽는 것은 등한시하고 있다. 기업체 인사담당자 7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신입사원들에게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능력이 ‘국어’였다는 답변이 나올 만큼 우리 사회의 교양 수준은 전체적으로 하락해 있다.

독서를 소홀히 하고서는 교양인이 될 수 없으며, 국민의 지적 수준 역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러한 평균 이하의 수준으로는 국가의 경쟁력 역시 저하될 수밖에 없다.

올 여름 휴가에는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몇 삼아 독서에 몰두해보는 것은 어떨까. 인터넷과 TV는 잠시 꺼두어도 좋을 듯하다.

이은비(취재부 기자)

독자의 소리-이렇게 생각한다

도피안사 구국구세법회 참가기

내가 다니는 절인 도피안사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구국구세법회 ‘가정의 가치 불교에 묻는다’가 7월 3일 회향했다. 처음에 주지 송암 스님이 구국구세법회 법석을 열겠다고 도피안사 신도들의 의견을 물을 때만 하더라도 솔직히 조금 황당하고 무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도피안사 내의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생각한다면 금방 성과도 얻을 수 없는 행위로, 실천하며 교화하여야 한다는 우리의 첫 번째 의무, 현대 우리사회 가정과 가족의 문제점들이 다방면의 전문학자들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들로 다가왔다.

그러나 막상 1회 미산 스님의 강의를 시작으로, 이어지는 여러 강사 분들의 값진 말씀들을 계속 듣다 보니, 이 법회가 마련돼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었다. 보현도량의 보현 행자로, 실천하며 교화하여야 한다는 우리의 첫 번째 의무, 현대 우리사회 가정과 가족의 문제점들이 다방면의 전문학자들을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들로 다가왔다.

역동적인 30여년을 살아온 50대 초반의 나, 열심히 살아온 인생에 자부심도 있지만,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해결사이기도 하다. 탁월한 해결사가 되려면? 역시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는 방법이다. 여러 강사들이 말씀하신 연기와 중도의 의미들 깊이 깨달아 팔정도의 수행을 통해 나를 버리는 것, 그리고 축량 못 할 인연으로 만난 나의 남편, 자식, 부모님을 부처님으로 만드는 것, 힘들지만 작은 실천이라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새 폭력은 사라지고 평화가 올 것이다. 내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한 작은 모임, 작은 무리, 작은 공동체에서부터.

新 노년의 시대를 열어 가야 할 50대 불자인 입장에서 열반의 모든 강의를 들은 나는 다음과 같이 각오를 다졌다. “앞으로 살아야 할 30년은, 지혜로운 자부심으로 구국구세의 용사가 돼야 하지 않을까.” 권오영(도피안사 신도)

‘천상천하 유아독존’ 뜻 제대로 알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세상에 잘못 활용되고 있다. 사람들은 물론 백과사전에서도 잘못, 생명의 존엄성, 부처의 위대함 등으로 잘못 해석되어 있다.

백과사전에는 ‘우주만물 중에서는 내가 가장 존엄한 존재’라는 뜻인데, 이것은 인간의 존귀한 실존성을 상징하는 말이며, 석가의 탄생이 속세로부터 성스러운 세계로의 초탈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석가는 자기 자신이 가장 존엄하다, 잘났다, 우주만물 중 인간 자체가 가장 존엄하다 라는 어리석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우주만물(나를 포함하여)은 자아의 학습에 의한 존재인식에 의해 존재한다’는 뜻이다. 석가의 단일 존재, 생명의 존엄 이런 것과 전혀 관계없다. 각 백과사전 및 교역 시에 잘못된 가르침을 수정해 주기를 바란다.

1019210(웃다뉴스)

달라이 라마 한국에 왔으면

달라이 라마 한국사무소가 설립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무척이나 반가웠다. 몇 해 동안이나 달라이 라마의 방한을 기다렸지만 성사될 기미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올 초 일문을 방문한 달라이 라마의 소식을 언론으로 접하며 부럽기 까지 했었다.

그런데 이번엔 한국사무소가 생기면서 모래만다라 전시회도 열리고 티베트가 한층 우리나라와 가까워지는 것 같아서 기쁘다. 이런 민간 교류로 활발해지면 달라이 라마의 한국방문도 멀지 않은 미래에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하루 빨리 정치적인 문제를 벗어나 불교의 대성인으로 달라이 라마를 한국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란다.

홍지석(서울 노원구 상계동)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으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더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박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았으나 고치지 못하고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소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 전생회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움직이는 禪의 승결 템플스테이

선무도 청소년 화랑수련회

골굴사·선무도 대금강문에서는 청소년 및 일반인을 위한 선무도 여름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절제된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나태해지기 쉬운 방학생활이나 휴가를 보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청소년 대인교육의 새 지평’이란 평가를 받은 선무도의 수련을 통해 평소 부족한 운동량을 보충하며 화랑의 호연지기를 맛보도록 견강하며 활기찬 삶, 화합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삶을 배워 익힐 수 있습니다. 주말과 휴가를 이용한 일반인 템플스테이는 년 중 상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연재 : 하계 - 7월 ~ 8월 (2달간) ▶ 모집 인원 : 수시모집 (1주, 2주, 한달) ▶ 대상 : 초등학생이상 개인 및 단체
- ※ 참가비는 청소년-1일 2만, 한달 60만원, 성인-1일 3만, 1개월 65만원이오니 아래 계좌로 송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를 하셨더라도 입금하지 않으면 예약확정이 안되오니 미리 해당계좌로 입금바랍니다.
- ☎ 054)721107-52-037300 (예금주 : 설기준 골굴사)

수련내용

1. 안반수의 수행법, 선요가, 선기공, 선무술, 참선, 불교한문, 전통문화(판소리, 활쏘기, 다도)
2. 기림사, 감은사지, 정형사지, 동해 문무대원통 등의 성지순례
3. 주지스님의 초발심지경문과 부모중경 강의를 통해 심성정화 및 한문공부
4. 매일 영어 회화를 원어민(외국인 행사)이 지도합니다.(해외 연수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 ※ 지도진 : 스님 · 사범 등 10명, 판소리강사 1명, 다도강사 2명, 영어강사 1명
- ※ 준비물 : 개인 세면도구 · 필기도구 · 우산 · 운동화 · 운동복 등
- ※ 접수 및 문의 : Tel. 054)745-0246, 744-1689 Fax. 054)746-0172 홈페이지 : www.sunmudo.com

일과표

시 간	내 용	시 간	내 용
4시	기상, 예불	13시	독서와 사색
5시	최선	14시	오후수련(학생)
6시	조강, 등산	15시	전통문화 강습(학생)
7시	이침 공양(발우 공양)	16시	율역 (도량청소 및 정비작업)
8시30분	불교 강의	18시	저녁 공양
9시	오전 선무도 수련	19시	예불, 자율학습 및 참회록(학생)
11시	108배 참회기도, 자아를 향한 서원	19시30분	저녁수련(일반인)
12시	점심 공양	21시	점호 및 취침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선무도 대금강문 · 선무도 대학